

동화의 전승 모티프



강의명	문: 삶과 꿈
담당 교수	박정식 교수님
제출일	2017년 12월 13일
학번/이름	2016***** 김다희 2016***** 강건

목차

I. 서론	p.3
1. 연구 배경		
2. 동화 장르		
3. 선정 작품		
II. 본론	p.6
1. 동화의 주요 모티프		
(1)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다.		
(2) 저주를 받거나 금기가 생기다.		
(3) 고난/위험을 겪다.		
(4) 감금/격리를 당하다.		
(5) 도움/구원을 받다.		
(6) 악인이 처벌 받다.		
(7)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다.		
(8) 임신의 모티프가 나타난다.		
2. 성별 모티프		
(1) 백설 공주		
(2) 잠자는 숲 속의 공주		
3. 시대적 변화		
(1) 모티프의 시대적 변화		
(2) 시각적 장치의 시대적 변화		
III. 결론	p.29

참고문헌

I. 서론

1. 연구 배경

우리의 삶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삶 자체가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따르면 ‘뮈토스(muthos)’는 행위의 ‘미메시스(mimēsis)’이다. 여기서 뮈토스는 ‘이야기의 구성’을, 미메시스는 ‘재현’ 또는 ‘모방’을 의미한다. 즉, 이야기는 ‘행위를 재현하는 사건들의 결합’을 의미한다.¹⁾ 이야기의 제 1의 원칙은 ‘플롯’이다.²⁾ 플롯은 이야기의 행동의 모방, 사건들의 배치를 뜻한다.³⁾ 어떤 행위를 모방하고 사건을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따라 이야기의 성격이 달라진다. 작가는 당시의 시대에서 통용되는 행위나 가치관을 모방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사건들을 배치하기 때문에 이야기는 시대상을 담고 있다. 동시에 이야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전승되는 가치관을 보여준다. 이는 곧 전승 모티프이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시대별로 세부적인 모티프의 내용이 추가 또는 삭제된다. 이는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 또는 규범이 달라짐에 따라 모티프도 그에 맞게 지속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전승 모티프의 큰 틀은 변하지 않지만 세부적인 모티프들은 각 시대상에 맞게 조금씩 변화해왔다는 점에서 모티프는 ‘유지와 변화’라는 이중적 특징을 가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여섯 가지 요소 중 시각적 장치의 비중을 가장 낮게 평가했다.⁴⁾ 시각적 장치는 비본질적인 요소이고 그 중요성이 다른 요소에 비해 비교적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⁵⁾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저평가와는 다르게 오늘날 시각적 장치는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과거 텍스트가 주 콘텐츠를 이루었던 시대와 달리, 영상이 주요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현대에서 시각적 장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된 것이다.

본 연구는 동화 장르의 작품들을 통해 주요 모티프와 전승 모티프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모티프의 통시성을 살펴볼 것이다. 과거 전통적인 사회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모티프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요소들이 현대에는 어떻게 변화/적용되었는지 다룬다. 더불어 연구를 통해 주요 콘텐츠의 변화(텍스트→영상)로 인해 시각적 장치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고 발전했는지, 시각적 장치를 간략히 탐색한다.

1) 주명진, “아리스토텔레스의『시학』에서의 '뮈토스'(muthos)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mythos' in Aristotle's Poetics”,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학위논문, 1990.

2) 박정자 (2013).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스토리텔링의 비밀이 된). 서울: 인문서재, p.76.

3) 박정자 (2013).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스토리텔링의 비밀이 된). 서울: 인문서재, p.76.

4) 박정자 (2013).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스토리텔링의 비밀이 된). 서울: 인문서재, p.77~78.

5) 박정자 (2013).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스토리텔링의 비밀이 된). 서울: 인문서재, p.73~78.

2. 동화 장르

동화란 아이 동(童)과 이야기 화(話)가 합쳐진 단어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어린이를 위하여 동심을 기초로 해서 지은 이야기로서 아동문학의 한 부문⁶⁾”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동화라는 단어를 보면 전래동화와 창작동화 등과 같은 교훈적인 이야기를 떠올린다. 그러나 이런 단편적인 생각은 동화의 의미를 축소시킨다. 동화는 영어로 fairy tale 즉 ‘요정 이야기’라고 표현되고, 프랑스어로는 영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콩트 드 페(contes de fées)라고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콩트는 ‘단편 소설보다도 짧은 분량의 글로, 대개 인생의 한 단면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그려내는, 유머, 풍자, 기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를 의미한다.

하지만 17세기 프랑스에서 콩트는 ‘사실이거나 공상적인, 심각하거나 재미있는 모험 이야기로 공상적이고 재미있으며 노인들이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들려주는 우스갯소리’라고 정의된다. 페(fée)는 여성의 모습을 닮은 가상의 인물로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존재로 요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17세기 콩트 드 페(contes de fées)는 요정이 등장하는, 교훈을 담은 재미있는 허구를 뜻한다.⁷⁾

당시 콩트 드 페는 궁정의 몇몇 귀족들과 사교계의 문인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만들어지고 낭독되었다.⁸⁾ 대중적으로 알려진 동화 백설 공주, 신데렐라, 잠자는 숲 속의 공주 등은 사실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동화가 아니다. 펜타메로네, 샤를페로, 그림형제의 동화전집의 작품은 현대의 재해석된 동화와 달리 자극적이고 외설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 오늘날 전해지는 어린이를 위한 동화는 서양의 옛 이야기에서 빌려온 이야기이다. 동화의 의미가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로 변화하여 동화 장르에 맞춰 작품들이 부분적으로 각색된 것이다.

이를 기점으로 본 연구는 동화를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누었다. 특정 대상(어린이)을 위한 장르로 만들고자 그 내용을 각색했다는 점에서 동화는 좁은 의미로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를 뜻한다. 반면 특정한 대상을 위한 장르가 아니라 한 국가에서 구전된 이야기에 뿌리를 두었다는 점에서 동화는 포괄적인 의미로 ‘초자연적인 것이나 마력, 마법 등이 나타나는 이야기’ 또한 의미한다.

6) 두피디아, “동화”,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39238, (2017.12.12.)

7) Charles Perrault, 유진원 옮김, 『샤를 페로 동화집: 교훈과 함께하는 지난 시절의 이야기들, 콩트들』, 꿈꾸는 고치, 2009, p.9~10.

8) Charles Perrault, 유진원 옮김, 『샤를 페로 동화집: 교훈과 함께하는 지난 시절의 이야기들, 콩트들』, 꿈꾸는 고치, 2009, p10~11.

동화는 과거와 현재,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호되는 장르 중 하나이다. 동화가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독자를 현실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끝없는 상상력으로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인 미지의 세계로 자유롭게 나아가도록 한다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⁹⁾ 동화는 어린이들을 포함해 사람들에게 있어 매우 가치 있는 장르다. 장르의 특성상 동화는 교훈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 시대의 작품을 통해 그 시대의 가치관과 규범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위와 같은 이유로, 동화 장르에 대해 매력과 흥미를 느껴 본 연구의 주제를 “동화의 전승 모티프”로 택하였다.

3. 작품 선정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작품의 목록이다. 텍스트와 영상 매체를 주로 선정하였다.

<텍스트 선정 작품>

펜타메로네	1.어린 노예 2.해와 달과 탈리아
그림 형제 동화전집	1.라퐁젤 2.신데렐라(원제: 재투성이 아이) 3.잠자는 숲 속의 공주(원제: 들장미 공주) 4.백설 공주

<영상 선정 작품>

디즈니 초기 영상	1.백설 공주(애니메이션) 2.신데렐라(애니메이션) 3.잠자는 숲 속의 공주(애니메이션)
디즈니 후기 영상	1.신데렐라(영화) 2.말레피센트(영화) 3.겨울 왕국(애니메이션)

*디즈니 초기/후기 구분은 개봉일 2000년 전후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음.

9) 정유경, “한국 현대 판타지 동화의 문학 교육적 수용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2007.

II. 본론: 전승 모티프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이야기에는 전승 모티프가 존재한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에서부터 현대의 작품까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야기에서부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이야기까지 모두 전승 모티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승 모티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작품에 존재하는 것일까?

전승 모티프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우선 모티프가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모티프(motif)의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모티프는 ‘어떠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화소(話素), 즉 이야기의 구성원을 일컫는 말’을 뜻한다.¹⁰⁾ 다시 말해 모티프는 이야기의 중요한 구성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림형제의 신데렐라에서 악인 처벌이라는 모티프는 조력자인 왕자가 계모(악인)에게 쇠 구두를 신겨 벌하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악인 처벌 모티프는 신데렐라 외에 다양한 작품에서도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전승 모티프이다. 전승은 문화, 규범, 제도 등을 이어받아 계승함을 뜻한다. 악인 처벌이라는 모티프가 여러 작품에 계속해서 넣어진 이유는 해당 작품이 쓰여 지기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던 ‘악인은 처벌을 받는다.’라는 가치관/규범이 작품을 쓰는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관 또는 규범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지속적으로 적용되며 시간적 전승이 이루어졌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나타나는 가치관이라는 점에서 공간적 전승도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승 모티프는 다양한 나라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장소와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작품 속에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장르의 전승 모티프는 인물, 상황, 배경 3가지 측면으로 분류된다. 인물 모티프는 작품 내에 등장하는 인물간의 관계 혹은 그 인물의 특징(단일)을 보여준다. 계모의 시기/학대는 인물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시이고, 재치 있는 말솜씨 혹은 동물의 말을 알아듣는 공주는 인물의 단일적인 특징의 예시다. 상황의 모티프는 행동, 상태변화 등이 있다. 악인이 주인공에게 저주를 내리는 상황,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각각 행동과 상태변화의 예이다. 배경 모티프는 장소, 시간 등을 포함한다. 장소 모티프의 예는 고립된 탑 또는 깊은 산 속이 있다. 마법이 풀리는 시간제한(ex: 신데렐라 12시)과 같은 요소는 시간 모티프를 잘 보여준다. 본 연구는 전승 모티프(≒주요 모티프)의 3가지 분류 방법 중 상황적 분류를 선택해 분석한다.

10) “모티브”, <개념어사전>, 청서, 2007.

1. 동화의 주요 모티프

본 연구는 동화 장르의 주요 모티프를 다음과 같이 총 8가지로 구분하였다.

-
- (1)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다.
 - (2) 저주를 받거나 금기가 생기다.
 - (3) 고난/위험을 겪다.
 - (4) 감금/격리를 당하다.
 - (5) 도움/구원을 받다.
 - (6) 악인이 처벌 받다.
 - (7)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다.
 - (8) 임신의 모티프가 나타나다.
-

위의 (1)~(8) 모티프를 『그림형제의 동화 전집』에 담겨있는 작품들에 근거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했다.

(1)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다.

대부분의 동화에서 공주 혹은 왕자와 같은 왕족의 신분(고귀한 신분)을 가진 주인공의 등장은 흔하게 다루어지는 모티프이다.

옛날에 어떤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가 있었으면!” 하지만 아기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왕비가 목욕을 하러 밖으로 나갔더니 개구리 한 마리가 물가로 기어와서 말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딸이 태어날 것입니다.” 개구리의 예언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왕비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¹¹⁾

-그림형제 동화집 중 잠자는 숲 속의 공주-

동화의 주인공은 대부분 고귀한 신분으로 나타난다. 위의 지문에서 알 수 있듯이 잠자는 숲 속의 공주에서 주인공은 왕족의 딸로서, 태어났을 때부터 고귀한 신분인 공주로 태어났다. 그 외에도 백설 공주 또한 본디 왕족으로 태어나 처음부터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다. 아래 지문은 백설 공주의 일부분이다.

11) 그림 형제, 김열규 옮김, 『어른을 위한 동화: 그림형제 동화전집』, 현대지성, 2015, p.363~364.

새하얀 눈 위에 떨어진 붉은 핏방울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왕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눈처럼 희고 피처럼 붉고 솟처럼 검은 아이가 있었으면!'
얼마 후 왕비는 딸을 낳았습니다. 아기는 눈처럼 하얀 살결과 피처럼 붉은 입술과 솟처럼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¹²⁾

-그림형제 동화집 중 백설공주-

하지만 특정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이 공주로 태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녀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 위에 앉아 무거운 나무 신을 벗어버리고 그 황금 신을 신었습니다. 그 신은 그녀의 발에 꼭 들어맞았습니다. 그녀가 의자에서 일어서자 왕자는 신데렐라를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그녀가 바로 자신과 춤을 추었던 그 아름다운 처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자는 기쁨에 넘쳐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내 진짜 신붓감이에요!"¹³⁾

-그림형제 동화집 중 신데렐라-

위의 장면은 평민 출신의 신데렐라가 왕자에게 고백을 받는 장면이다. 해당 작품에서 주인공은 평민/귀족으로 태어났다. 하지만 주인공이 평민/귀족으로 태어났더라도 이야기의 끝 부분에서 주인공은 왕자와 결혼해 왕비가 된다. 주인공이 본래 평범한 출신이라 해도 결국 신분상승을 하여 왕비가 되어 고귀한 신분 모티프를 보여준다.

동화에서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다' 모티프가 등장하는 이유를 동화의 사전적 정의를 통해 유추해보았다. 동화의 사전적 정의는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동화는 어린이를 주요 독자층으로 이야기가 쓰여 진다. 이러한 장르의 특성상 동화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여 동심을 자극하며 동시에 교훈을 전달해주어야 한다. 이 때 동경할만한 대상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어린이들의 동심을 자극하고 교훈을 주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귀한 신분 모티프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2)저주를 받거나 금기가 생긴다.

해당 모티프는 주로 악인이 주인공에게 영원한 잠에 빠지게 되거나 죽음을

12) 그림 형제, 김열규 옮김, 『어른을 위한 동화: 그림형제 동화전집』, 현대지성, 2015, p.378.

13) 그림 형제, 김열규 옮김, 『어른을 위한 동화: 그림형제 동화전집』, 현대지성, 2015, p.211~212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저주를 거는 장면으로 나타난다. 또는 주인공이 조력자의 도움을 받지만, 그 도움의 제약으로 금기를 내거는 형식으로 드러난다.

열한 번째의 여인이 막 선물을 주고 났을 때 열세 번째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초대
를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인사를 하기
는커녕 주위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냅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열다섯 살이 되면 저 아이는 물레의 북바늘에 찢려 죽을 것이다!”¹⁴⁾

-그림형제 동화집 중 잠자는 숲 속의 공주-

위 내용은 잠자는 숲 속의 공주의 일부로 주인공이 악인에 의해 저주에 걸리게 되는 장면이다. 악인은 자신이 축제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노해 악의적인 주술을 사용하여 주인공에게 저주를 걸게 되는데, 이러한 저주는 인물의 관계에 의해 일어나는 모티프로 분류가 가능하다. 또한 동화 장르의 특성상 주인공과 악인이 여성이었는데, 주인공이 저주에 걸리게 되는 이유는 여성의 질투(악인의 질투)에서 기인한다. 여기서 여성의 질투는 모티프를 통해 저주와 같은 위험한 요소로 분류되었다. 다시 말해, 해당 이야기가 쓰인 시대에서는 여성은 시기/질투를 하는 존재로 평가받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여성의 질투를 저주나 금기와 관련되게 만들어 여성의 질투 행위 자체를 매우 부정적으로 여겼다는 시대적 가치가 드러난다.

이제 왕비는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외딴 비밀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 방에서
왕비는 무서운 독 사과를 만들었습니다. 곁에서 보면 하얗고 발그스름한 것이 아주 먹
음직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침을 꼴깍 삼키면서 한 입 베어 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
게 됩니다. 사과가 준비되자 왕비는 시골 아낙네로 변장을 한 다음 일곱 개의 산을 넘
어 일곱 난쟁이가 사는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¹⁵⁾

-그림형제 동화집 중 백설공주-

위는 백설 공주의 장면 중 하나로 악인인 왕비가 백설 공주를 죽이기 위해 독 사과를 만드는 장면이다. 잠자는 숲 속의 공주에서는 주술을 이용한 저주가 사용되었지만 해당 작품에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한 저주가 나타난다. 위 장면 처럼 저주 모티프는 꼭 주술적인 요소를 통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백설 공주의 작품 내에서 왕비는 허리띠와 독 바른 빗, 그리고 독 사과를 이용해 백설 공주를 죽이려고 한다. 이처럼 물리적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주인공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행위 자체 또한 저주 모티프에 해당된다.

14) 그림 형제, 김열규 옮김, 『어른을 위한 동화: 그림형제 동화전집』, 현대지성, 2015, p.364.

15) 그림 형제, 김열규 옮김, 『어른을 위한 동화: 그림형제 동화전집』, 현대지성, 2015, p.387

(3)고난/위험을 겪다.

주인공은 악인에 의해 고난 또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동화 장르에서는 앞서 나왔던 저주/금지 모티프와 해당 모티프를 연결 짓는 경우가 많다.

작은 방 안에는 늙은 여자가 물레 앞에 앉아 북바늘로 부지런히 베를 짜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중략)... 공주는 이렇게 물으면서 북바늘을 집어 들어 돌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바늘을 만지는 순간 마법의 주문이 살아나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따끔 하는 순간 공주는 그대로 침대 위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갔습니다.¹⁶⁾

-그림형제 동화집 중 잠자는 숲 속의 공주-

해당 장면은 잠자는 숲 속의 공주의 일부분이다. 공주가 열다섯 살로 접어드는 날, 마침 왕과 왕비가 궁전에 없어 공주 혼자 남아있었다. 넓은 궁을 구경하며 돌아다니던 공주는 결국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 저주의 내용대로 북바늘에 찔린다. 저주 모티프에서 나왔던 악인의 저주가 이행되는 것이다.

싱싱한 사과에 군침을 흘리고 있던 백설 공주는 시골 아낙네가 사과 한 쪽을 먹는 것을 보고는 참지 못하고 한 손을 뻗어 독이 든 반쪽을 집었습니다. 한 입 깨물자마자 그대로 죽은 듯이 쓰러졌습니다. 왕비는 모진 눈길로 백설 공주를 쳐다보면서 깔깔 웃었습니다. “눈처럼 희고 피처럼 붉고 솜처럼 곱다구! 이번에는 난쟁이들도 너를 살려내지는 못할걸!”¹⁷⁾

-그림형제 동화집 중 백설공주-

난쟁이들이 백설 공주에게 낯선 사람이 오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라고 신신당부 했음에도, 결국 백설 공주는 시골 아낙네로 변신한 왕비(악인)에 의해 위험에 처한다. 위 내용과 더불어 백설 공주는 이전에 악인에 의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계속해서 악인의 수법에 넘어간다. 조력자의 조언과 그것을 지키지 않아 위험에 처하게 되는 주인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독자들에게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장치이다. 위와 같은 사건의 반복을 통해 작가는 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경고를 하는 것이다. 또 반복적인 사건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동화 장르가 가지는 특징 중 하나인 ‘교훈’이 스토리 속에서 어떻게 묘사

16) 그림 형제, 김열규 옮김, 『어른을 위한 동화: 그림형제 동화전집』, 현대지성, 2015, p.365.

17) 그림 형제, 김열규 옮김, 『어른을 위한 동화: 그림형제 동화전집』, 현대지성, 2015, p.387

되는지 분석된다.

소녀는 아침부터 밤까지 힘들게 일만 해야 했습니다.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물을 길어 와야 했고, 불을 때고 요리를 하고 청소도 해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의붓 언니들은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소녀를 괴롭히고 조롱했습니다. 아궁이의 재속에다 콩을 잔뜩 쏟아 놓고는 소녀에게 그것을 알알이 주워 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소녀가 지칠 대로 지쳤을 때 소녀를 침대에서 쫓아내 아궁이에 옆의 잿더미에서 자게 했습니다.¹⁸⁾

-그림형제 동화집 중 신데렐라-

위는 신데렐라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앞선 고난/위험 모티프와 다르게 신데렐라는 저주 또는 스스로의 어리석은 행동에 의한 고난을 겪지 않는다. 극중 주인공은 잠자는 숲 속의 공주에서 공주가 저주를 받은 이유와 같이 질투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난을 겪고 있다. 여기서 악인으로 등장하는 계모와 의붓 언니들은 신데렐라가 친딸 이라는 점을 질투하여 신데렐라를 괴롭힌다.

(4)감금/격리를 당하다.

감금/격리의 모티프는 일반적으로 주인공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주인공을 외부와 차단시키기 위해서 드러난다. 주인공은 주로 뽀족한 첩탐, 방, 등의 공간에 감금/격리된다.

백설 공주는 난쟁이들과 함께 살면서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낮에는 백설공주 혼자 있기 때문에 마음씨 고운 난쟁이들은 이렇게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계모를 조심하세요. 그 여자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겁니다. 아무도 집 안에 들여보내서는 안 됩니다.”¹⁹⁾

-그림형제 동화집 중 백설공주-

해당 장면은 난쟁이들(조력자)이 백설 공주를 보호하는 장면이다. 난쟁이들은 백설 공주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자 집에서 살림을 해주는 것을 대가로 백설 공주를 보호해주는데, 그 방법으로 자신들의 집에서 백설 공주를 지내게 하여 외부와 격리시키는 것을 택했다. 해당 장면에서는 왕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난쟁이들의 집에서 보호받는 것으로 나오지만 감금/격리 모티프는

18) 그림 형제, 김열규 옮김, 『어른을 위한 동화: 그림형제 동화전집』, 현대지성, 2015, p.203~204

19) 그림 형제, 김열규 옮김, 『어른을 위한 동화: 그림형제 동화전집』, 현대지성, 2015, p.

처녀의 순결성을 지킨다는 내용과 관련된 모티프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모티프는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말이나 우리나라의 쓰개치마, 서양에서 주로 묘사되는 방안에 있는 여성과 돌은 던지거나 창문을 두드리서 여성을 부르는 남자의 모습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라퐁젤은 무럭무럭 자라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열두 살이 되었을 때 여자 마법사는 그녀를 어느 숲 속에 있는 탑 속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 탑에는 문도 계단도 없었고 맨 꼭대기에 조그만 창이 하나 있을 뿐이었습니다.²⁰⁾

-그림형제 동화집 중 라퐁젤-

라퐁젤은 감금/격리의 모티프를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작품 중 하나이다. 작품에서는 그녀가 열두 살이 되었을 때 그녀를 탑 속에 가두었다고 나오는데, 이는 가임기의 소녀를 격리 시키는 것으로 감금/격리 모티프가 처녀의 순결성을 지킨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지한다. 더 나아가 감금/격리 모티프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 해제 당하는데 이와 동시에 처녀의 순결성은 사라진다. 따라서 감금/격리 모티프는 다가올 임신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림형제 동화집에서 나타나는 라퐁젤에서도 왕자가 탑에 올라 라퐁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외에 별다른 묘사가 없음에도 시간이 지나고 라퐁젤은 두 아이를 낳았다.

(5)도움/구원을 받다.

도움/구원 모티프는 조력자가 등장하여 위험/고난에 처한 주인공을 구출해내는 형태를 유지한다. 주인공을 돕는 조력자는 대부분 남성이거나 동물이며 결정적으로 주인공을 돕는 역할은 남자 중에서도 왕자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다음에 나올 장면은 작품 신데렐라에서 위험에 처한 신데렐라를 새들이 도와주는 장면이다.

“착한 비둘기들아, 산비둘기들아,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새들아. 이리 와서 날 좀 도와 주렴. 좋은 건 저 단지 안에 넣고, 나쁜 건 너희들이 먹고” 그러자 맨 먼저 두 마리의 하얀 비둘기가 부엌 창가로 날아왔고 뒤이어 산비둘기들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새들이 머리를 위아래로 꾸역꾸역 모여 들더니 재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형제 동화집 중 신데렐라-

20) 그림 형제, 김열규 옮김, 『어른을 위한 동화: 그림형제 동화전집』, 현대지성, 2015, p.135

계모는 신데렐라에게 파티에 가려면 한 시간 안에 잿더미 속에 있는 콩 두말을 골라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계모가 일부러 신데렐라가 파티에 참석하지 못하게 평범한 인간이라면 제 시간 안에 할 수 없는 양의 일을 시킨 것인데, 신데렐라는 새들을 불러 이 일을 성공해낸다. 도움/구원 모티프에서 주인공이 동물의 도움을 받는 것은 주인공의 순수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인공이 자연과 대화할 수 있을 만큼 내면이 순수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난 두렵지 않습니다. 가서 아름다운 들장미를 보아야겠어요.” 젊은 왕자가 말했습니다. 신랄한 노인은 왕자를 만류하려고 애를 썼지만 왕자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중략)... 드디어 왕자는 탑으로 가서 작은 방에 달린 문을 열었습니다. 21)

-그림형제 동화집 중 잠자는 숲속의 공주-

위의 장면은 잠에 빠진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왕자가 구출하러 가는 장면이다. 동화의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도움/구원 모티프는 주로 왕자에 의해 일어나는데 이러한 장면에서 당시 시대상인 여성에게 수동적인 모습을 기대하고 남성에게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에 대한 기대가 나타난다.

(6)악인이 처벌 받다.

악인 처벌 모티프는 작품에 따라 등장하지 않기도 한다. 악인 처벌의 등장 유무에서의 규칙성은 발견할 수 없었는데, 시대에 따라서도 일정한 규칙성이 나타나지 않고 같은 작품이어도 작품의 버전에 따라 악인 처벌의 모티프가 추가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였다.

신랑과 신부가 교회를 향해 출발할 때 큰언니는 신데렐라의 오른편에, 작은 언니는 왼편에 붙어 서 있었는데 갑자기 두 마리의 비둘기가 달려들어 두 사람의 눈알을 하나씩 쪼았습시다. ...(중략)... 두 언니는 그들의 심술궂고 못된 마음씨 때문에 남은 평생 동안을 맹인으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22)

-그림형제 동화집 중 신데렐라-

해당 장면은 신데렐라를 괴롭히던 신데렐라의 두 의붓 언니(악인)가 결국 비

21) 그림 형제, 김열규 옮김, 『어른을 위한 동화: 그림형제 동화전집』, 현대지성, 2015, p.367~368

22) 그림 형제, 김열규 옮김, 『어른을 위한 동화: 그림형제 동화전집』, 현대지성, 2015, p.212~213

둘기들에게 눈을 쪼여 맹인이 되어버리는 악인 처벌의 모티프가 나타나는 장면이다. 이러한 모티프는 동화를 읽는 대상에게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수단이다.

연회장에 들어선 계모는 백설 공주를 알아보고 가슴이 철렁 했습니다. 두 발이 얼어붙어 도무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뜨겁게 달군 쇠 신발을 붙잡게로 집어다 계모 앞에 가져 왔습니다. 계모는 시뻘건 쇠 신발을 신고 땅에 쓰러져 죽을 때까지 춤을 추어야 했습니다.²³⁾

-그림형제 동화집 중 백설공주-

그림형제 동화집의 백설 공주에서도 악인 처벌 모티프가 잘 드러난다. 몇 번이나 백설 공주를 질투해 백설 공주를 죽이려한 계모는 결국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다. 백설 공주의 아름다움에 대한 질투로 인해 작품 내내 주인공을 속이고 죽이려 갖은 속임수를 쓴 악인 계모가 벌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며 ‘남을 괴롭히면 벌을 받는다.’라는 교훈을 추론할 수 있다. 특히 ‘땅에 쓰러져 죽을 때까지 춤을 추어야 했다.’는 부분을 통해 남을 괴롭힘으로 인해 얻는 벌은 매우 고통스럽고 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교훈의 설득 효과를 더 돋보이게 한다.

(7)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다.

대부분의 작품은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 이는 동화라는 작품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결말로 설정하여 긍정적인 정서를 주기 위함이다. 또한 주인공은 선하고 고귀한 신분의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선한 성품의 주인공이 악인에 의해서 비극적으로 끝난다면 독자들로 하여금 큰 상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말은 대부분 행복하게 마무리된다.

왕자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자초지종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하오. 나와 함께 우리 아버지 성으로 갑시다. 나의 아내가 되어 주오” 백설공주는 왕자가 믿음직한 생각이 들어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²⁴⁾

-그림형제 동화집 중 백설공주-

해당 장면은 백설 공주가 왕자와 만나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다. 이는 고귀한 신분과 고귀한 신분의 만남으로 독자들은 이러한 결말을 통해 선하고 고귀

23) 그림 형제, 김열규 옮김, 『어른을 위한 동화: 그림형제 동화전집』, 현대지성, 2015, p.392

24) 그림 형제, 김열규 옮김, 『어른을 위한 동화: 그림형제 동화전집』, 현대지성, 2015, p.391~392

한 신분을 가진 주인공이 결국 고귀한 신분을 가진 대상을 만나 이어진다는 내용으로 대리만족을 느낀다.

그녀의 눈물 두 방울이 그의 두 눈에 떨어지자 왕자의 눈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는 시력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는 라폰젤과 두 아이들을 자신의 왕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왕국 사람들은 글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오랫동안 매우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²⁵⁾

-그림형제 동화집 중 라폰젤-

라폰젤에서 왕자는 라폰젤을 잃었다는 생각에 탑에서 뛰어내렸고 가시나무에 눈을 찢려 장님이 되었지만 마지막에는 라폰젤의 눈물을 통해 치유 받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된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 행복한 결말 모티프는 강력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는데, 어떠한 손실 혹은 상처라도 결말에 와서는 복구되거나 사라져버리고 행복한 결말로 가는 데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는 대부분 사라져 버린다.

(8)임신의 모티프가 나타난다.

해당 모티프는 작품 내에 비교적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작품에 큰 영향을 끼친 모티프이며 각 문화의 관습이나 가치가 잘 드러난다. 앞에서 언급한 감금/격리가 다가올 임신을 상징할 수도 있다는 해석처럼 작품의 끝에서는 모티프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를 인식한다면 작품 곳곳에서 해당 모티프의 존재 확인이 가능하다.

어느 날 그 아내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다보다가 아주 탐스러운 상추밭을 발견했습니다. 그 상추들이 너무나 싱싱해 보여 그녀의 입에는 군침이 돌았습니다. ...(중략)... “그대의 말이 사실이라면 얼마든지 상추를 뽑아 가도 좋소 하지만 한가지 조건이 있소. 그대의 아내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내게 주어야 하오.”²⁶⁾

-그림형제 동화집 중 라폰젤-

해당 장면은 라폰젤의 어머니가 라폰젤을 임신했을 때의 사건이다. 라폰젤의 어머니는 상추가 너무 먹고 싶었고 여자 마법사의 텃밭에서 자란 탐스러운 상추를 먹는 대신 여자 마법사에게 아이를 주게 되었다. 하지만 과거, 상추는 임신 중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풍속 및 가치관이 작품 속에

25) 그림 형제, 김열규 옮김, 『어른을 위한 동화: 그림형제 동화전집』, 현대지성, 2015, p.140

26) 그림 형제, 김열규 옮김, 『어른을 위한 동화: 그림형제 동화전집』, 현대지성, 2015, p.134~135

서 라퐁젤의 어머니가 상추를 먹고 아이를 내어 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즉 상추를 먹었기 때문에 아이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런데 신데렐라가 너무나 급히 그에게서 도망치는 바람에 왕자는 그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왕자도 미리 대책을 세워 두고 있었습니다. 즉, 궁궐에서 밖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송진을 발라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데렐라가 계단을 달려 내려갈 때 그녀의 왼쪽 신이 거기 달라붙고 말았습니다.²⁷⁾

-그림형제 동화집 중 신데렐라-

이 장면에서도 임신과 관련된 모티프가 등장한다. 바로 도망치는 신데렐라와 그것을 쫓는 왕자의 모습과 신데렐라가 신발 한 짝을 놓고 가는 장면이다. 도망치는 신데렐라와 그것을 쫓는 왕자의 모습은 약탈혼의 잔재를 보여준다. 또한 신발은 여성의 임신과 깊은 연관이 있다. 신데렐라가 신발 한 짝을 놓고 가는 장면은 아버지가 신발 한 짝을 신랑에게 주는 결혼과 관련된 풍습과 관련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신데렐라가 임신의 상징인 신발 한 짝을 남겨놓고 떠나는 모티프는 신데렐라는 왕자와 결혼을 해 아이를 가지고 행복한 결말을 가질 것이라는 내용을 암시한다.

2. 성별 모티프

과거 동화의 다양한 작품들은 남성지배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작중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은 사랑에 빠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갖는 일, 착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남자의 구원을 받는 일 그리고 남성에게 사랑받기 위해 예뻐지려고 노력하는 등의 행위가 최고의 성취로써 당연한 듯 묘사된다. 또한 동화에서 남자에 대한 묘사로는 ‘힘이 세다, 멋지다, 능동적이다.’라는 수사여구가 사용되고, 여자에 대한 묘사로는 ‘예쁘다, 착하다, 매우 수동적이다.’라는 수사여구가 주로 사용된다. 이처럼 동화 장르에서는 남녀의 성역할을 고정화시키는 경향이 매우 짙게 나타난다.²⁸⁾

본 연구는 모티프가 성별에 의해 구분되는 이유를 당시 시대상이라고 보았다. 동화가 글로써 쓰인 시대는 대부분 남성을 진취적이고 경쟁적이며 모험적인 지도자와 같은 성향을 가진다고 여겼다. 반면, 여성에 대해서는 복종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독립적이지 않은 사람으로써의 성향을 가진다고 인식했다. 작품이 시대적 가치와 규범에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동화의 내용에는 남녀 성별 차

27) 그림 형제, 김열규 옮김, 『어른을 위한 동화: 그림형제 동화전집』, 현대지성, 2015, p.209~210

28) 송현희, “영어동화와 성역할 분석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1.

이가 명확히 드러나게 된다. 해당 연구는 동화 작품에 성별 모티프가 뚜렷하게 등장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백설 공주, 잠자는 숲 속의 공주 총 2가지 작품을 통해 분석하였다.

(1)백설 공주

작품의 주요 인물은 백설 공주, 왕비(악인), 사냥꾼, 난쟁이, 왕자 총 다섯 명으로 구분된다.

(a)여성성

작중 백설 공주와 왕비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 특히 왕비는 아름다움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지기 싫어했는데, 이는 왕비가 가진 여성의 권력보다 여성의 아름다움이 더 가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또한 왕비는 자신이 가진 거울을 통해 계속해서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지 확인한다. 이런 왕비의 모습은 여성의 외모가 예뻐야 한다는 여성의 외적 아름다움 모티프를 보여주는 예시이다. 작중 백설 공주와 관련되어 서술된 장면에서 또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모티프가 드러난다. 아래는 백설 공주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1. 그러는 사이에 백설 공주는 무럭무럭 자라면서 하루가 다르게 아름다워졌습니다. 일곱 살이 되자 더욱 예뻐져서 왕비의 아름다움을 앞지르게 되었습니다.
2. 사냥꾼은 아름다운 백설 공주가 가여워졌습니다.
3. 난쟁이들은 백설 공주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촛불을 가져왔습니다.
“저런! 저런! 어찌먼 이리도 아름다울까!”
난쟁이들은 너무 신이 나서 미처 백설 공주를 깨울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4. 그런 다음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백설 공주가 누워 있는 관을 보았습니다. 관 위에 금으로 적힌 글씨를 본 왕자는 난쟁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관을 다오. 원하는 것은 뭐든 다 줄테니.”²⁹⁾

-그림형제 동화집 중 백설공주-

29) 그림 형제, 김열규 옮김, 『어른을 위한 동화: 그림형제 동화전집』, 현대지성, 2015, p.378~389.

위 예시의 1번은 백설 공주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내용을 보여준다. 이는 백설 공주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한 문장이다. 후에 2번에서 사냥꾼은 ‘아름다운’ 백설 공주가 가엽게 느껴져 왕비의 명령을 거부하고 공주를 살려준다. 또한 3번에서 난쟁이들은 본인의 집에 누군가 무단으로 침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입자가 아름답기 때문에 바라보기만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번과 3번은 여성의 아름다움이 도움/구원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써 작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티프이다. 여기서 ‘여성은 아름다워야지 삶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시대적 가치가 드러난다.³⁰⁾ 4번에서는 관에 누워있는 백설 공주를 본 왕자가 그녀의 미모에 홀려 ‘시체가 누워있는 관’을 사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지불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모티프는 여성의 아름다움이 남성에게 극단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아름다움은 여성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가치인 것이다.

왕비(계모)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확인하기 위해 거울에게 자주 질문을 던진다. 거울은 남자가 자신을 응시하기만을 바라는 여성의 마음이 내포된 매체이다.³¹⁾ 이는 왕비가 거울을 통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확인함으로써 남자에게 본인의 아름다움을 어필하고, 미모에 대해 평가받기 바라는 행위이다. 앞선 내용과 마찬가지로 거울 또한 ‘여성의 외적 아름다움이 중요하다.’라는 시대적 가치를 보여주는 모티프인 것이다.

이야기의 결말에서 주인공인 백설 공주는 결국 왕자와 결혼해 행복하게 지내는 모티프로 구성되어 있다. 여자 주인공은 스스로는 탈출할 수 없고, 오직 남자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위기에서 탈출한다는 장면을 통해 여성은 항상 수동적이고 나약한 존재로만 그쳐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작품 내내 백설 공주는 왕비의 계략에 당하는 모티프를 반복해 보여주는데, 이는 여성이 약하고 복종하며 남자보다 우월하지 못한 존재라는 여성에 대한 시대상으로 인해 나타난 모티프이다.

(a)남성성

반면 작중 남성 캐릭터는 여성과 다르게 묘사된다. 사냥꾼의 경우, 왕비로부터 백설 공주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는다. 하지만 그는 아름다운 백설 공주를 보고 연민을 느낀다.³²⁾ 그리고 왕비의 명령에 거역하고 백설 공주를 살려주기

30) 송현희, “영어동화와 성역할 분석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33.

31) 송현희, “영어동화와 성역할 분석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34.

32) 그림 형제, 김열규 옮김, 『어른을 위한 동화: 그림형제 동화전집』, 현대지성, 2015, p.378~389.

로 판단 내린다. 이러한 모티프를 통해 남자는 자신이 정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주인공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당시의 남성은 스스로의 의지를 위해서 자신보다 권위 있는 사람의 명령에 과감히 불복종할 수 있는 존재로써 인식된 것이다. 더 나아가 이야기가 쓰인 시대에서는 남성을 능동적이고 모험적이며, 쉽게 결정을 내리는 주체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게 여겨졌다는 사실 또한 추론된다.

난쟁이도 위험에 처한 백설 공주를 도와준다는 점, 공주에게 왕비를 조심하라고 조언을 하는 부분 등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남성적 면모를 보여준다. 그중에서도 특히 공주의 아름다움에 반해 주인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하려는 모티프는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졌다는 시대상을 드러낸다.³³⁾ 또 다른 남성 캐릭터인 왕자는 빈번하게 나타나는 모티프인 ‘위험에 빠진 여성을 구해주는 능동적인 남성’에 해당되는 행동을 한다. 이러한 모티프를 통해 왕자는 위기에 처한 아름다운 공주를 구해낼 수 있는 오직 한 명, 그 시대 최고의 남성상을 나타낸다.³⁴⁾

(2) 잠자는 숲 속의 공주

잠자는 숲 속의 공주에서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들은 백설 공주의 여성 캐릭터보다 비교적 다양성을 가진다. 백설 공주에서의 여성은 공주와 계모, 그리고 공주의 친모까지 포함해 약 3명 정도이다. 그에 반해 잠자는 숲 속의 공주에서는 공주, 왕비, 요정, 나쁜 여인(악인), 물레를 돌리는 할머니, 등의 여러 여성 캐릭터가 등장한다. 하지만 여성 캐릭터들이 맡은 역할은 여전히 수동적이라는 점에서는 백설 공주와 공통점을 가진다. 다음 박스를 통해 해당 작품에서 여성 주인공은 어떤 모티프를 가지는지 자세히 분석하였다.

1. 한편 지혜로운 여인들의 선물은 약속대로 이루어져서 공주는 아름답고 예절바르고 친절하고 현명하기 이를 데 없는 소녀로 자랐습니다. 누구라도 공주를 한 번 보면 반해버렸습니다.
2. 장미 울타리 속에는 성이 있고 그 성 안에는 들장미라는 아름다운 공주가 있으며 공주는 부모님과 신하들과 함께 벌써 백 년째 잠들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3. 왕자는 공주의 아름다움에 반해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왕자는 허리를 숙여 공주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33) 송현희, “영어동화와 성역할 분석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37.

34) 송현희, “영어동화와 성역할 분석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39.

4. 들장미와 왕자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³⁵⁾

-그림형제 동화집 중 잠자는 숲속의 공주-

(a)여성성

1번은 잠자는 숲 속의 공주의 아름다운 외면과 착한 내면을 보여주는 모티프이다. 여성 주인공이 나오는 대부분의 동화에서 주인공은 아름다운 모습과 착한 성품을 갖는다. 여기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것은 그 당시 시대의 주인공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공주는 ‘인형’과 같은 외모를 가지며 이야기 속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묘사된다.³⁶⁾ 백설 공주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을 상징하는 모티프에서 주인공의 외적 아름다움은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요소이다. 이러한 내용은 박스 안의 나머지 문단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마법에 빠져 잠든 궁전에 대한 소문은 ‘아름다운 들장미 공주’라는 내용으로 퍼져있다는 부분, 그 소문을 왕자가 알게 된 후 공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궁금해 위험을 무릅 쓰고 잠든 궁전을 찾아가는 모티프는 특히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의 사람들이 여성의 미를 얼마나 중시했는지에 대한 가치관을 보여준다. 또한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도 여성은 남성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되었다.

악역인 초대받지 못한 여성은 위와 조금 다른 모티프를 보여준다. 악인은 공주 탄생을 기념으로 한 축제에 초대를 받지 못해 앙심을 품고 공주에게 저주를 내린다. 저주 모티프를 통해 당시 시대에서 여성을 질투와 관련된 존재로 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잠자는 숲 속의 공주의 모티프들은 여성이 수동적이며,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내면에 존재하는 성향을 갖고, 아름다운 외면을 가져야 한다는 시대적 상을 보여준다.

(a)남성성

다음으로, 여성과 대비되는 남성의 모티프를 분석하고 그를 통해 당시 남성성에 대한 시대적 가치를 찾아보았다. 아래는 잠자는 숲 속의 공주 중 남성 모티프 부분을 발췌한 내용이다.

35) 그림 형제, 김열규 옮김, 『어른을 위한 동화: 그림형제 동화전집』, 현대지성, 2015, p.363~368

36) 송현희, “영어동화와 성역할 분석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26.

1. 왕비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왕은 너무 기뻐서 잔치를 크게 벌였습니다.
2. 왕은 사랑하는 딸을 그런 재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온 나라의 북바늘을 불태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3. “난 두렵지 않습니다. 가서 아름다운 들장미를 보아야겠어요.”
젊은 왕자가 말했습니다. 선량한 노인은 왕자를 만류하려고 갖은 애를 썼지만 왕자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4. 왕자가 장미 울타리로 다가서자 아름다운 꽃들이 저절로 길을 터주었다가 왕자가 들어서자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37)

-그림형제 동화집 중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예시의 1번을 보면 공주의 탄생을 기뻐해 축제를 벌이는 인물은 ‘왕’만으로 쓰여 있다. 그리고 2번을 보면 왕은 사랑하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³⁸⁾ 이처럼 남성은 긍정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로 묘사된다. 질투로 인해 공주에게 죽음의 저주를 건 여성 악인과는 대비되는 특성을 가진다. 3번에서 왕자는 자신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장미 공주의 아름다움을 확인하기 위해 과감히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티프는 남성이 모험을 좋아하고 진취적, 활동적,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당시 시대적 남성성을 드러낸다. 또한 왕자의 용맹함을 드러내면서 남성은 항상 멋있고 강인한 존재여야 한다는 가치관을 보여준다. 4번에서 나타나는 왕자가 장미 울타리를 지나려 하자 꽃이 알아서 길을 내어주는 모티프는 남성에 대한 비범함을 보여주는 요소이다. 여느 동화가 그렇듯 잠자는 숲 속의 공주도 왕자의 등장, 그리고 왕자가 키스를 하며 모든 위험이 해소되며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다.’ 모티프는 결국 남성의 능동성과 여성의 수동성을 강조하며 동화가 만들어진 시대의 관습 및 풍습, 성별에 대한 가치관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3. 시대적 변화

(1) 모티프의 시대적 변화

37) 그림 형제, 김열규 옮김, 『어른을 위한 동화: 그림형제 동화전집』, 현대지성, 2015, p.363~368

38) 송현희, “영어동화와 성역할 분석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29~32.

우리는 한 번쯤 알고 있던 동화들이 사실 무시무시한 이야기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실제로 백설 공주, 잠자는 숲 속의 공주, 신데렐라 등 여러 이야기는 사실 옛이야기로부터 전해져왔다. 그리고 각 이야기는 오늘날 흔히 알려진 내용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 이유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작품은 시대의 가치관에 맞게끔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는 양상으로 조금씩 변화해왔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총 2 권의 책과 최근 각색된 ‘말레피센트’를 통해 모티프의 시대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 탐구해 볼 것이다. 연구를 위해 선별한 작품은 다음과 같다.

펜타메로네 / 그림형제 동화전집 / 말레피센트

펜타메로네 동화 전집은 원작에 해당되는 작품을 담고 있다. 펜타메로네의 동화 작품들은 약 1634~1636년 사이에 작성되었다고 추정된다. 다음으로는 그림형제의 동화 전집이다. 그림 형제의 동화 전집은 1806년에 출판되었고, 앞선 두 책에 비해 비교적 대중적으로 알려진 내용과 비슷한 동화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 말레피센트는 2014년도에 개봉한 영화로, 잠자는 숲 속의 공주를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한 작품이다. 본 연구는 두 책과 영화 모두에 담겨 있는 ‘잠자는 숲 속의 공주’를 택해 자세히 비교분석하였다.

■ 펜타메로네: 해와 달과 탈리아 (1634~1636년)

잠자는 숲 속의 공주는 해당 책에서 ‘해와 달과 탈리아’라는 제목으로 명시되어 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겐 제목부터 매우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다. 생소한 제목처럼 내용 또한 굉장히 색다르게 구성되어있다. 이 작품을 처음 읽는 사람은 원래 알고 있던 작품과 같은 작품인지 구별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흔히 알려진 ‘동화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줄거리를 통해 살펴 보았다.

위대한 왕으로 부터 탈리아라는 딸이 태어난다. 탈리아는 작은 아마 조각 때문에 큰 곤경에 처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금지령까지 내렸으나 결국 작은 아마 조각 때문에 탈리아는 죽게 된다. 죽은 탈리아는 어느 궁전에 남겨지는데, 이곳을 지나가던 왕이 그녀를 발견하고 두 아이를 임신시킨다. 두 아이는 젖을 찾다가 탈리아의 작은 아마 조각을 빼내게 되고 깨어난다. 이 때 우연히 다시 탈리아를 방문한 왕은 깨어난 탈리아를 목격하고 탈리아와 두 아이를 데려가기로 한다. 하지만 왕에게는 이미 왕비가 있었고 질투심 강한 그녀는 아이들을 요리로 만들어 아버지에게 주고 탈리아는 불태우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요리사는 왕비 몰래 아이들을 구해 주고 위기의 순간 탈리아는 왕에 의해 풀려난다. 왕은 탈리아를 죽일 목적으로 준비된

불 속에 왕비를 집어 던진다.³⁹⁾

해와 달과 탈리아는 마치 두 개의 이야기가 합쳐진 것처럼 보인다. 우선 제일 익숙하게 알려진 잠자는 숲 속의 공주에 해당되는 이야기 하나와, 외전 같이 보이는 이야기가 이어져 있다. 탈리아는 작은 조각에 의해 첫 번째 ‘위기-도움-해소’ 이야기 과정을 겪고, 왕의 본 아내로 인해 추가적으로 두 번째 ‘위기-도움-해소’의 이야기 과정을 겪는다.

■ 그림형제: 잠자는 숲 속의 공주/들장미 공주 (1806년)

그림형제에서의 잠자는 숲 속의 공주는 두 가지 제목으로 불린다. 첫 번째 이름은 가장 잘 알려진 “잠자는 숲 속의 공주”, 두 번째 이름은 “들장미 공주”이다. 다음 내용을 통해 이야기를 살펴보자.

아이들 간절히 원하던 왕과 왕비는 마침내 예쁜 딸을 얻게 되었다. 기쁜 왕은 이를 축하하기 위해 12명의 지혜로운 여인을 초대했다. 하지만 초대받지 못한 13명째의 여인이 화가나 아이는 물레 바늘에 찔려 죽을 것이라고 저주를 내렸지만 지혜로운 12명째의 여인이 죽음 대신 깊은 잠으로 저주를 우회했다. 왕은 저주를 피하기 위해 물레를 모두 불태웠지만 결국 공주는 물레에 찔려 깊은 잠에 빠졌고 잠은 온 궁전으로 퍼져 모두 잠이 들게 되고 성은 들장미로 막혀버린다. 후에 공주는 잠자는 아름다운 들장미로 불려졌고 이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졌다. 많은 왕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모두 실패해 죽음을 맞이했지만 한 왕자가 마침내 공주에게 도달하여 키스를 하였고 온 궁전의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 왕자와 공주는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된다.⁴⁰⁾

들장미 공주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잠자는 숲 속의 공주’와 거의 일치하는 줄거리를 보여준다. 악인의 저주에 의해 위기를 겪고, 왕자에 의해 도움을 받아 저주를 해소하며 이야기가 마무리 된다.

그렇다면 두 작품은 모티프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을 보일까? 아래는 “해와 달과 탈리아”와 “들장미 공주” 각 작품에서 나타나는 모티프를 비교 분석한 표이다.

39) 잠바티스타 바실레, 정진영 옮김, 『펜타메로네』, 책세상, 2016, p.580~588

40) 그림 형제, 김열규 옮김, 『어른을 위한 동화: 그림형제 동화전집』, 현대지성, 2015, p.363~368

펜타메로네: 해와 달과 탈리아	모티프	그림 형제: 들장미 공주
'작은 조각'에 의해 곤경에 처해질 운명	저주	"15살 때, 물레의 북바늘에 의해 죽을 것."
1. 작은 조각 금지령을 내림 - 사물 격리 2. 아버지가 탈리아 시체가 있는 궁전을 폐궁함	격리	1. 모든 북바늘을 태움 - 사물 격리 2. 들장미에 의해 궁전이 감춰짐
1. 저주가 실현됨 2. 왕의 아내가 아이들&탈리아를 죽이려 함	위기	공주가 바늘에 찔려 영원한 잠에 빠짐
아이들이 탈리아의 손톱에 꽂힌 작은 조각을 빼냄	도움	100년 후, 왕자가 찾아와 공주에게 키스를 함
탈리아가 일어남	해소	공주와 궁전이 마법에서 풀려남
왕이 왕비를 불 속에 집어 던져 죽임	악인 처벌	없음

해당 표에 따르면 저주의 매개체와 사물 격리의 대상이 '작은 조각'과 '물레 바늘'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다르다. '위기'와 '악인 처벌' 모티프 부분에서 두 작품은 큰 차이를 보인다. 해와 달과 탈리아는 '위기-도움-해소'과정을 두 번 겪기 때문에 이야기 내에서 크게 총 두 가지의 위험 모티프를 갖는다. 하지만 들장미 공주는 '위기-도움-해소'가 한 번만 일어나기 때문에 한 가지의 위험 모티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의 결말 부분에서 해와 달과 탈리아에선 악인 처벌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반면 들장미 공주에선 악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한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는 동일한 장면이 각 작품에서 어떻게 다르게 보여 지는지를 통해 두 작품 간의 차이점을 자세히 분석했다.

a. 문장 길이의 차이 / 개연성

ㄱ. 옛날에 위대한 왕이 있었는데 탈리아라는 딸이 태어나자 왕국에 있는 현자와 점쟁이들을 모두 불러 딸의 운명을 예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모임을 가진 후 탈리아가 작은 아마 조각 때문에 큰 곤경에 처할 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⁴¹⁾

ㄴ. 왕비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왕은 너무 기뻐서 잔치를 크게 벌였습니다. 친척과 친구와 친지는 물론, 지혜로운 여인들도 초대했습니다. 딸에게 자상하고 친절하게 대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서였습니다. 그런데 나라 안에는 13명의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요리를 대접할 금 접시는 12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사람은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잔치는 성대하게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지혜로운 여인들은 아이에게 기적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미덕을 ... (중략)... 열세 번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초대를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인사를 하기를 커녕 주위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뉘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15살이 되면 저 아이는 물레의 북바늘에 찢려 죽을 것이다.” 이 말만 던지고는 뒤돌아서서 궁전을 나갔습니다... 42)

위 두 작품이 보여주는 부분은 공주가 저주를 받게 되는 장면이다. (ㄱ)의 글은 두 줄로 밖에 구성되어있지 않은데, (ㄴ)의 들장미 공주는 중략이 쓰일 정도로 긴 문단으로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같은 장면을 묘사함에도 불구하고 문장의 길이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이야기의 개연성 때문이다. (ㄱ) 작품의 주인공은 태어나서 죽을 운명으로 점쳐졌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ㄴ) 작품에선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여인이 화가 나 주인공에게 저주를 건다. (ㄱ)작품은 사건의 원인이나 맥락이 매끄럽지 않다는 부분에서 낮은 개연성을 보여준다. 반면 (ㄴ)작품은 비교적 이야기의 진행에 있어 짜임새 있는 개연성을 보여준다.

b. 자극적/외설적 요소의 유무

ㄱ. 마침내 탈리아가 마술에 걸린 것처럼 앉아있는 방에 도착한 왕은 여자가 잠 들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러 보기도 하고, 소리를 질러 보기도 했으나 아무리 해도 그녀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름다움에 그만 몸이 달아오른 왕은 그녀를 안고 침대로 가서 사랑의 열매를 수확했지요.43)

ㄴ. 드디어 왕자는 탑으로 가서 작은 방에 달린 문을 열었습니다. 들장미는 그 곳에 누워있었습니다. 왕자는 공주의 아름다움에 반해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왕자는 허리를 숙여 공주에게 입맞춤했습니다. 44)

위의 박스는 잠든 공주를 발견한 왕/왕자의 행동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ㄱ) 작

41) 잠바티스타 바실레, 정진영 옮김, 『펜타메로네』, 책세상, 2016, p.580~588
42) 그림 형제, 김열규 옮김, 『어른을 위한 동화: 그림형제 동화전집』, 현대지성, 2015, p.363~368
43) 잠바티스타 바실레, 정진영 옮김, 『펜타메로네』, 책세상, 2016, p.580~588
44) 그림 형제, 김열규 옮김, 『어른을 위한 동화: 그림형제 동화전집』, 현대지성, 2015, p.363~368

품에서는 탈리아의 아름다움에 몸이 달아오른 왕은 그녀를 안고 침대로 가서 사랑의 열매를 수확하는 행동을 취한다. 반면에 (ㄴ) 작품에서 왕자는 아름다운 공주에게 반해 키스를 한다. 왕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속에서 공주에게 강간 및 불륜을 저지른다. 또한 위의 박스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ㄱ) 작품은 더 자극적이고 잔인한 요소가 있다. 바로 아이들을 요리해 아이들의 친 아빠에게 자식의 '인육'을 먹이려는 왕비의 행동이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은 그림 형제의 동화 전집에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인육을 먹는 행위, 불륜과 강간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한 거부감 등이 과거에 비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즉, 잔인하고 자극적인 모티프가 시대 흐름에 따라 점점 사라지는 추세를 보였다.

■ 디즈니: 말레피센트 (2014년)

말레피센트는 디즈니에서 '잠자는 숲 속의 공주'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악역인 말레피센트의 입장으로 각색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잠자는 숲 속의 공주와는 조금 다른 줄거리를 보여준다.

먼 옛날 요정들의 왕국과 인간의 왕국이 있었고 서로의 왕국에 출입이 통제되었다. 요정 왕국에는 선한 소녀요정인 말레피센트가 있었는데 스테판이라는 인간 소년이 왕국에 침입 하자 그대로 풀어주었다. 이 일을 계기로 둘은 사랑이 싹트게 되어 16살에 키스를 하게 된다. 하지만 키스 이후 스테판은 요정왕국에 오지 않다가 왕의 보상에 눈이 멀어 요정왕국에 돌아와 말레피센트의 날개를 잘라 가고 왕이 된다. 이에 분노한 말레피센트는 스테판의 딸 오로라 공주에게 물레에 찢려 죽을 것이라는 저주를 내린다. 하지만 공주의 순수함에 감동받아 말레피센트는 저주를 취소하려 하지만 이미 저주를 되돌릴 수 없었고 공주는 잠에 빠진다. 말레피센트는 공주를 깨우기 위해 왕자를 데려가지만 소용이 없었고 눈물을 흘리며 공주에게 작별 키스를 하자 공주가 깨어난다. 직후에 스테판은 말레피센트를 기습하지만 공주의 도움으로 스테판 왕을 물리친다. 결국 말레피센트와 오로라의 힘으로 두 왕국은 화해하게 된다.

본 연구는 말레피센트를 통하여 주로 어떤 모티프 요소가 변화했는지 분석해 보았다. 크게 세 가지의 모티프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었는데, 변화한 모티프로는 악인/여성성/진실한 사랑이 해당된다.

<악인의 변화>

- 전과는 다르게 남성이 악인을 맡음.
 - '여성의 질투와 그에 따른 처벌' 모티프가 사라짐.
-

<여성성의 변화>

- 젊고 순결한 여성에서 탈피. (날개를 잃은 말레피센트: 순결성을 잃음)
- 항상 수동적으로 남성에게 구출 받던 주인공이 현대에서는 능동적으로 극복함.

<진실한 사랑의 대상 확장>

- 과거에는 아름답고 순결한 여성과 지위 높은 남성(ex:왕자) 간의 이성적 사랑만이 '진실한 사랑'으로 강조 됨.
 - 여성과 여성 간의 사랑(ex:모성애/가족애)등으로 진실한 사랑의 대상이 확장 됨.
-

(2)시각적 장치의 시대적 변화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각적 장치가 시인의 기술과는 거리가 먼 비본질적인 요소라고 보았기 때문에 시각적 장치에 대해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이는 당시의 기술적 한계와 큰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현대의 영상 매체가 없었고 주로 텍스트와 연극에서나 시각적 장치가 사용되었다. 과거의 시각적 장치는 신을 묘사하기 위해 끈으로 사람을 묶어 공중에 띄우는 등의 간단한 장치를 사용하거나 군사/전투 규모의 장면을 관객에게 나타내기 위해 극중 인물은 마치 고지에서 현장을 중계하는 것처럼 적군에 대한 섬세한 묘사를 말로써 늘어놓는다. 연극에서는 대규모의 전쟁 장면을 시각적인 장치로 표현하는데에 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간단한 장치의 존재는 굉장히 조잡했기에 관객이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보다는 오히려 관객의 극중 몰입을 방해하기도 했다. 대규모 전쟁을 시각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말로 묘사함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향의를 하거나 불만을 표출하지 않는데, 이는 연출자와 관객 사이에서는 암묵적인 동의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동시에 관객들은 시각적 장치의 기술적 한계를 인식하고, 그로 인해 시각적 장치에 대한 스스로의 기대 자체가 높지 않았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과거의 시각적 장치는 한정적 이었다.

반면 현대에는 시각적 장치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페이드 인', '와이프', '페이드아웃' 등 다양한 연출 기법이 영화와 같은 영상에서 사용되고 CG 그래픽 기술을 통해 영상은 물론 게임, 광고, UI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화려하거나 사실적이거나 매력적인 효과를 연출한다. 심지어 유리판에 반사되는 빛을 이용하여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캐릭터가 나오는 콘서트를 열거나, 휴대폰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과 GPS기술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안에서의 가상공간과 현실의 공간을 동시에 보여주는 가상현실 등 지금도 끊임없이 시각적 장치는 발전하고 있다. 현대의 영상 특히 영화 장르에서는 CG그래픽이 어색하면 영

상의 몰입이 크게 떨어진다. 이는 시각적 장치가 발전함에 따라 관객의 기대 또한 높아졌다는 것이고 높아진 관객의 기대는 낮은 수준의 시각적 장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시각적 장치에 대한 관객의 수요/기대가 있기 때문에 연출자는 계속해서 시각적 장치를 발전시킨다.

본 연구는 동화 신데렐라를 선정하여 시각적 장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비교 분석했다.

a. 그림형제 中 신데렐라

“그러자 새 한 마리가 금실과 은실로 지은 드레스 한 벌과 비단 수를 놓은 신 한 켤레를 떨어주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서둘러 그 옷을 갈아입고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실 은실로 지은 눈부신 옷을 입은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으므로...(중략)... 45)
-그림형제 동화집 중 신데렐라-

위 장면은 신데렐라가 드레스를 입는 장면이다. 해당 장면은 ‘금실’, ‘은실’, ‘비단 수’와 같이 명사로 변신 과정이 설명되어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시각적 묘사가 적은 민담의 특징이 나타난 것으로 인물의 표정이나 몸짓, 주변 사물에 대한 묘사 등이 거의 없다.

b. 디즈니 초기 애니메이션 中 신데렐라

디즈니의 초기 애니메이션 영상(신데렐라:1950년)에서는 해당 장면이 처음으로 영상화 되면서 인물의 몸짓, 표정 등이 구체적으로 시각화 되었다. 이 때 변신 과정에서 반짝거리는 마법적인 효과 등 여러 부분에서 텍스트보다 시각적 장치를 돋보이게 활용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하지만 당시 시대수준으로는 화려한 효과를 연출하는 데에는 비교적 단순하게 색채가 표현되는 등 기술적인 한계가 드러났다. 또한 영상에서 화려한 장면을 연출할 때, 한 장면 안에 변신 과정, 인물의 동작, 표정 등 모든 것을 원 샷에 담아내었는데 이는 디즈니의 현대 영상과 비교되는 점이다.

45) 그림 형제, 김열규 옮김, 『어른을 위한 동화: 그림형제 동화전집』, 현대지성, 2015, p.207

c. 디즈니 현대 영화 中 신데렐라

디즈니의 현대 영화 영상(신데렐라:2015)에서는 전작 애니메이션 신데렐라에 비해 의상이 매우 화려해 졌다. 영화 내 의상들은 의상 디자이너에게 직접 디자인을 맡겼는데, 이는 시각적 장치의 중요성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상을 포함한 전반적인 색채가 굉장히 다양하고 밝고 화려해졌다. 밝고 다양한 색감을 사용한 이유는 관객들에게 시각적 만족을 유발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기술적인 차이로 인해 전작과 달리 변신장면이 크게 달라졌는데, CG를 최대한 활용하여 매우 사실적이고 화려하게 변신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는 현대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시각적 장치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키려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영상의 연출에 있어서 현대 영상에서는 과거의 영상과 달리 의도적으로 CG연출 장면과 연기자의 표정연기 장면을 분리해서 보여준다. 이 이유는 발전한 CG기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인데, CG연출 장면만 보여줌으로서 관객은 연출 장면에만 집중하여 화려한 효과를 즐길 수 있고 이후에 연기자의 표정연기를 봄으로써 이야기의 내용에 다시금 집중하게 된다. 분리 연출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CG기술만 보여주어도 될 만큼 시각적 장치를 잘 준비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습은 디즈니의 다른 현대 영상 작품 중 겨울 왕국에서도 잘 드러난다. 다양한 CG가 사용된 마법의 힘으로 얼음 성을 짓는 장면은 멀리서 바라보는 구도로 만들어졌다. 화려한 효과로 성이 지어지는 모습이 집중되어 나타나고, 주인공은 작게 표현된다. 주인공이 어떠한 동작이나 감정을 표출할 때에는 다시 인물을 가까이에서 보는 듯한 시점으로 나타난다.

III. 결론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동화 장르의 공통된 전승 모티프를 분석하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모티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양상을 비교분석한 후, 시각적 장치 또한 시대에 따라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탐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여러 동화 작품을 읽어 자주 등장하는 상황적 주요 모티프를 정리하였고, 주요 모티프가 각 작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비교분석하였다. 둘째, 모티프 중에서도 ‘성별 모티프’라는 큰 틀의 주제로 다시 한 번 사회적·시대적 규범 및 가치관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은 주요 모티프를 살펴보았다. 셋째, 펜타메로네/그림 형제/디즈니 약 3가지 버전의 동화를 잠자는 숲 속의 공주라는 특정 작품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했다. 넷째, 텍스트와 초기/후기 영상 작품을 참고해 한 작품의 같은 내용에서 어떤 시각적 장치가 사용되었는지, 시각적 장치의 발달 과정을 비교하였다.

해당 연구를 진행하면서 전승 모티프는 시대에 맞게 추가/삭제, 확장/축소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해오고 있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동화라는 장르의 특성상 이야기에 각 시대가 추구하는 성별의 역할에 대한 모티프가 잘 나타났는데, 이러한 모티프는 현대에 오면서 크게 변화해온 요소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잠자는 숲 속의 공주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 결과 기존의 수동적이고 약한 여성성이 현대에 오면서 능동적으로 변하고 남성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대에서는 더 다양한 역할과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전승 모티프가 가지는 전승이라는 특성상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는 과거와 현재의 전승 모티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이야기의 원형과 현대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착각할 수 있을 만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앞서 말했던 성 역할의 변화처럼 시대가 추구하는 성격 또는 가치가 바뀔에 따라 이야기도 그에 맞게 변형되어 오면서 지금의 이야기와 큰 차이를 보이게 된 것으로 예측했다.

시각적 장치 또한 시대에 따라 크게 변화한 모습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변화의 이유로 기술 수준의 차이를 선정하였고, 디즈니의 초기 작품과 현대 작품을 통해 비교/분석 해보았다. 과거 작품에 비해 현대 작품에서는 시각적 장치를 기존보다 크게 부각시키기 위해 각 장면마다의 연출 기법을 다르게 하거나 여러 시각적 도구/소품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오늘날 최신의 기술이 적용된 높은 수준의 시각적 장치를 널리 사용함에 따라 관객은 시각적 장치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연출자는 관객의 욕구/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시각적 장치를 발전시켰다. 즉, 시각적 장치의 발전에 대한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 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대에서 시각적 장치의 비중과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연출자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시각적 장치를 담기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해당 연구를 진행하면서 전승 모티프와 시각적 장치의 정의, 역할,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전승 모티프와 시각적 장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변천되어 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이야기의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가 위와 같은 공통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야기는 인간의 역사를 보여주는 지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삶 자체가 이야기라는 생각에 확신의 불씨를 지폈다. 시대가 변하면서 이야기 또한 함께 변화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 박정자 (2013).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스토리텔링의 비밀이 된). 서울: 인문서재.
- 송현희, “영어동화와 성역할 분석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두원(2002), 인간과 언어= Man and Language, 學生生活研究(JOURNAL OF STUDENT GUIDANCE) 9호.
- 주명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의 '뮈토스'(muthos)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mythos' in Aristotle's Poetics”,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학위논문, 1990.
- 정유경, “한국 현대 판타지 동화의 문학 교육적 수용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2007.
- Charles Perrault, 유진원 옮김, 『샤를 페로 동화집: 교훈과 함께하는 지난 시절의 이야기들, 콩트들』, 꿈꾸는 고치, 2009.
- Grimm brother, 김열규 옮김, 『어른을 위한 동화: 그림형제 동화전집』, 현대지성, 2015
- Giambattista Basile, 정진영 옮김, 『펜타메로네』, 책세상, 2016